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E-mail : hc1260@hanmail.net
TEL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발 행 인 : 한 균

춘천성시신문

성 시 비 전
교회갱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1998년 9월 15일 창간
The Chuncheon Holycity Times
제 122호 2009년 1월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열어갈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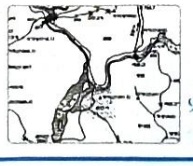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 안에서 시작하는 1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 40:30-31)

INDEX

2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4 Holy Movement! 하나의 비전, 하나의 운동
6 하나님의 마음에 꼭드는 교회(제일성결)
11 새해!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9 | 우리곁에 있는산 종합편



13 | 흐르는 강물처럼

"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하시길...



국회의원 허 천

2008년, 生命에 이르는 넘새요, 그 향기로운 넘새가 우리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통해 춘천을 넘어 세계 곳곳에 흘러넘치기 까지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心碑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를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목사님들과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統一되게 하려 하심이 주님의 뜻이라고 바울선생님은 에베소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믿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믿음의 역사(役事)를 회복(回復)하여 거룩한 도시 춘천 나아가 세계를 이루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 새해에는 만물(萬物) 안에서 만물을 充滿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넘치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예수 안에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더욱 성장하여 세계에 聖市化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찬 춘천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춘천시 의회 의장 이 건 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

기축년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깨끗한 도시, 거룩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와 「춘천성시신문」 애독자 여러분께도 새해를 맞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작은 항상 가슴이 설레고, 기대감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는 커다란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전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며,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승리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도약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고 희망찬 춘천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의원 21명은 춘천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합리적인 감시기능을 통하여 각종 시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특히, 고유가, 고물가로 인하여 서민가계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 속에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어려운 이웃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의회도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역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삶이 풍요로운 경제중심도시 춘천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천시장 이 광 준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장 이광준입니다.

희망이 가득 넘치는 기축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그간 희생과 사랑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장효근 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님'을 비롯한 교역자 여러분과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국내 · 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따라 우리 시민들의 삶도 그만큼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여 노력해 나가면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에서는 올해, 우리 춘천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도시 곳곳을 재정비하고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내부 환형도로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춘천마임축제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다양한 축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낙후된 문화예술회관 일대를 문화예술단지로 만들어 나가는 등 시민의 문화 향수권을 더욱 확대시켜, 그동안 축적된 문화예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문화콘텐츠 중심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50여개 기업이 춘천으로 이주하거나 창업하였으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 6,0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 많은 기업이 춘천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도 지속적인 협조와 동참을 통해 2009년에는 "삶이 풍요로운 경제중심도시 춘천"이 되는데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성원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도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핑 독서 문화원 을 소개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준비된 인재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기독 인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원수까지 사랑하는 성숙한 인격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탁월한 실력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준비된 기독 인재는 올바르고 탁월한 교육을 통해서만 양성될 수 있습니다. 점핑 독서 문화원은 오랜 노하우와 이론을 바탕으로 세계화, 국제화에 걸 맞는 우수한 기독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관 및 사역 소개

기관에는 독서지도사양성과 부모교육을 위한 독서대학, 교회 교육과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인 사립문고, 방학 중 집중학습을 통해서 변화의 극대화를 체험하는 캠프스쿨, 훌륭한 기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독서스쿨과 학습 컨텐츠를 생산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점핑 독서 문화원은 위와 같은 사역들을 통해 기독교 교육과 공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행사 안내 점핑 독서 캠프가 2009년 1월 8일 ~ 1월 17일까지 철원복지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점핑 독서 대학 강좌가 2009년 2월 12일 춘천YMCA에서 개강합니다.
(문의: 011-9804-1635, 017-764-8816, 011-367-3454)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 가득한 새해 되세요.



할렐루야! 새해를 맞아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2009년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이란 직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부흥과 성장에 온 힘을 쏟아오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교회연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춘천지역의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일에 앞장서라는 막중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기쁨보다는 사명감과 중압감이 무겁게 누릅니다.

교회연합이라고 하는 대의는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연합운동을 위해서 회장의 직을 충성으로 감당하신 분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 그리고 선 · 후배 목회자들과 장로님,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춘천지역의 교회 부흥과 성시화를 위해서 연합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펼쳐야 할 사역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은 1년직 이기에 많은 것을 시도하여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회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사역들 중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역들을 중심으로 성시화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춘천지역의 모든 동역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도움과 협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동역자들의 협력이 없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넓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장 효 근 목사 (동성교회)

화합과 전도, 봉사에 힘쓰는 장로연합회



먼저 부족한 저에게 춘천기독교 장로연합회 회장이란 귀한 직분을 주셔서 주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합회 장로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밝은 미래와 복음 전도에 앞장서가는 장로님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9년 한 해 동안 다음 세 가지에 중점을 두어 장로연합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합입니다. 독불장군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회원 장로님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일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조찬기도회 등산(국사봉, 안마산, 봉의산)을 통하여 대화의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함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모든 회원 장로님들이 하나로 뭉쳐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전도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전도에 본을 보임으로 춘천을 성시화 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 전략을 세워 전도에 앞장서는 장로연합회가 되도록 이끌어 갈 것입니다.

셋째, 봉사입니다. 지역과 주변의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때 이 사회는 행복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에도 캠페인, 자연보호활동, 불우이웃돕기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사회,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고장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도록 함으로써 장로연합회 위상과 존재가치를 깨달아가는 운영을 하고자 다짐해봅니다. 장로연합회 장로여러분과 기독교 교우 여러분의 뜨거운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춘천기독교 장로연합회 회장 이 영 식 장로 (중앙감리교회)

춘천을 섬기는 일에 하나 되는 교역자!



할렐루야!

춘천의 교회와 교역자, 그리고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평안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지극히 부족한 자가 교역자연합회 회장이 되어 교역자연합회를 섬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교역자연합회와 함께 해오면서 늘 마음 한편에 지울 수 없는 생각은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는 교역자들과 서로 교제하는 일입니다. 많은 일들이 눈에 보이지만 제게 주어진 한 해 동안 임원들과 함께 교역자간의 개인적 교제뿐만 아니라 교단을 넘어 선 · 후배 교역자간의 교제,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간의 교제, 또 원로 목사님을 섬기는 일들... 그리고 지역을 섬김에 있어서 목회자로서 앞장서는 일, 이 일이야 말로 저희들이 섬겨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춘천의 교역자들이 하나 될 때 개 교회의 건강과 춘천 성시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을 확신 합니다. 아름다운 춘천에서 함께 동역하며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춘천교역자연합회 회장 지 용 찬 목사 (춘천은혜교회)

거룩한 꿈을 꿉시다!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 보면 감사해야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다 허락해주신 한 해였습니다. 대통령취임, 국회의원선거, 거짓으로 얼룩진 수입쇠고기 반대 촛불시위로 인해 국가가 위기였을 때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셨으며, 오일 주식 환율 파동으로 닥쳐온 세계적 경제 불황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사람들은 춘천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눈을 돌이켜보면 춘천만큼 좋은 도시가 지구상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이 사랑하는 춘천은, 천혜의 자연수와 푸르고 싱싱한 자연림, 4계절의 변화와 다양성, 높고 낮은 산언덕과 기름진 들판, 푸르른 하늘 청정공기, 적당한 강수량, 순후한 인심, 사통팔달로 놓인 도로망과 아직 덜 개발된 미래의 땅이라는 점입니다.

춘천에서 20세기 성시화운동이 시발되었고, 홀리클럽운동의 진원지(震源地)입니다. 춘천에서 시작된 이 거룩한 운동이 전국으로 세계로 힘차게 파급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닷물도 없는 춘천에서 조수부력중력양수발전소가 시동이 걸렸고, 춘천에서 시작된 해나 천연물신약회사가 상상할 수없는 엄청난 비밀을 찾아 인류최대의 신약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주님께서 춘천을 통하여 더 큰일들을 이루시리라는 거룩한 꿈을 꾸어야 하겠습니다.

춘천홀리클럽 회장 이 학 규 장로 (석사교회)

성탄절 나눔 페스티벌

2008년 성탄문화행사는 작년에 이어 문화를 통한 성시화에 힘쓰기 위한 일환으로 연합회장 장효근 목사(동성교회)와 임원들에 의해 기도하면서 기획되었다.

이 행사는 춘천시번영회를 통해 명동번영회와 지하상가번영회와 함께 명동과 지하상가를 성탄의 거리 만들기를 시작, 15일부터 지하상가 중앙광장에서 문을 열었다. 이 기간 기독교연합회의 자원하는 각 교회들마다 오후2시부터 6시30분까지 다양하게 교회안의 아름다운 성탄의 축복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네일아트, 아트페인팅, 솜사탕과 사랑의 옆서 나누기와 희망의 트리를 통해 명동과 지하상가를 지나는 모든 시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다. 특히, 희망의 트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의 숨은 천사되기 운동을 펼치면서 시번영회와 시장번영회와 M백화점 그리고 교회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쌀 약700포, 라면 약200포 등이 모아졌고, 이를 25일 성탄절 오후3시 희망나눔 페스티벌에서 시민들이 선정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약 500여명이상 모인 이번 행사에는 기독교연합회의 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지하상가번영회와 명동번영회, 춘천와이신협과 새춘천신협, M백화점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희망을 쌀을 모아 성탄의 의미를 실천했다.

이 행사에는 많은 숨은 봉사자들이 함께 했다. 특히 예수전도단(대표:김준환 간사)은 매일 30여명이 문화행사의 중심에서 다양하게 자원하며 연극 및 찬양으로도 아낌없는 수고로 섬겨주었다. 또 지하상가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빛의 거리를 만들면서 협력하였다. 성탄나눔행사에 관심과 사랑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 [연합회 총무 조영춘 목사]








Holy Movement! 하나의 비전, 하나의 운동

- 2008, 춘천성시비전포럼을 말한다. -



춘천성시화운동본부(공동주최: 춘천기독교연합회)는 2008년 10월 8일(수) 오후 2시 평화감리교회(한균목사)에서 "하나의 비전, 하나의 운동"이라는 주제로 춘천성시비전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에서는 손규하 목사(부산)의 진행으로, 효과적인 전도전략-이원호 목사(대구), 성시화운동의 세계화-전용태 장로(인천), 부산성시화운동의 오늘과 내일-유임근 목사(부산), 대전성시화운동의 역사와 과제 -홍남표 장로(대전), 성시화운동의 효과적인 협력방안 -조영춘 목사(춘천)가 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효과적인 전도전략 - 이원호 목사(대구성시화운동본부)

현재 전체 인구의 8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는 편리성을 가지고 있지만 각종 사회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도시 복음화, 성시화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형편이다. 한국교회는 지난 10년간 기독교인 14만 4천여 명이 감소하였고, 매년 3천여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한다. 한국사회는 총체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자살율, 이혼율, 고령화속도, 청소년 흡연율, 양주 소비량, 교통사고, 저출산율, 인터넷 음란 접속율, 무속인 70여만 명, 형사소송 일본의 10배, 음식물 쓰레기, 부패, 뇌물만연 등. 한국교회는 이러한 때에 성시화운동이라고 하는 효과적인 전도전략을 통해 전도하고, 더 나아가 사회 환경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효과적인 전도전략으로는 성도들의 모범된 삶, 겸손, 친절, 희생 등으로 불신 사회에 감동을 주는 일,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하여 성경적인 법규, 제도, 환경을 이루는 것이다.

※성시화운동의 세계화 - 전용태 장로(한국성시화운동본부)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상설기관으로 창설된 이후 현재 국내 주요도시-청주, 대전, 부산, 서산, 당진, 포항, 광주, 홍성, 예산, 전남, 보령, 태안, 서천, 천안, 용인, 대구, 전주, 목포, 군산, 울산, 완도, 구미, 충주, 김제, 평택, 원주, 의정부 등에 성시화운동본부가 창설되어 성시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를 넘어 해외 주요 도시에로 확산되어 가는 중이다. 성시화운동은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 확장운동인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신앙적 애국운동으로 국제적으로는 제2청교도운동, 세계평화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한국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성시화운동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2009년 인천다민족 성시화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175개국 700만 한인 디아스포라를 성시화운동으로 하나 되게 하고 세계 한인을 세계 선교자원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

※부산성시화운동의 오늘과 내일 - 유임근 목사(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산성시화운동본부는 2000년 6월 7일에 창립, 복음을 통한 성시화와 교회의 영향력을 통한 도시의 변화를 위해 사역하고 있다. 창립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심어온 성시화에 대한 도전이 이제는 부산 교계의 중요 비전이 되었다. 특히 2007년 〈JACB2007〉는 부산지역의 교회들이 연합을 이루는데 자연스러운 고리역할을 감당하였고, 해운대에서 열린 〈AWAKENING2007〉기도운동은 부산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으며, 〈부산플랭크린그래함전도축제〉는 부산 1500교회의 교역자들의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공고히 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교회연합운동은 교회를 넘어 부산시청이나 관청들과의 친밀한 협력관계로 발전되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부산은 370만 대도시이다. 그러다 보니 부산성시화운동도 부득이하게 성시화운동의 중심교회를 따라 활동이 활발한 지역과 저조한 지역이 생겨나게 되었다. 부산내 16개 각 구군으로 균등하게 운동을 확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기독교인구율이 확대되어야 한다. 연합과 성시화는 도시를 성경적으로 건강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영혼 구원의 열정과도 맞닿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성시화운동의 역사와 과제 - 홍남표 장로(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은 1998년 대전 지방법원장으로 양인평 장로님을 비롯하여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기독교인으로 부임하면서 공감대가 형성, 1998년 11월 26일 대전성시화운동본부가 탄생하였다(이사장:최병남목사, 초대본부장:박세현장로, 신윤표장로). 현재 대전성시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다음의 과제가 있다. 조직 및 사업의 문제, 내부조직구성과 직무의 분담문제, 임원회비, 회원조직 및 회비납부문제, 중앙 성시화운동본부와의 협력관계, 지역과 지역 성시화운동의 연대와 협력관계 등이다. 대전성시화운동본부는 1만명 초청 금식성회, 성시무료진료(대전기독의료인회), 성시화 선교축구축제, 이단 · 사이비퇴치연합사업, 성시화중보운동, 성시화예수혁명운동, 성시화기독미술전, 성시화기독문화포럼, 성시화의료세미나, 선교단체협력사업, 예수성보 복음선포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시화운동의 효과적인 협력방안 - 조영춘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화운동의 효과적인 전개를 위한 협력방안의 전략적 실행원리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됨의 원리**-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교회 안에 심각하고도 뿌리 깊은 분열과 이기주의가 존재하고 있다. 잃어버린 형제애를 회복하고 나눔과 섬김으로 지역을 위한 복음의 그물을 칠 수 있는 전략적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2. **기도의 원리**-성시화운동은 행사중심이 아닌 성령의 행전으로 나타나야 한다. 중보기도의 전략을 활용하여 도시와 교회를 하나님의 군사처럼 재정렬해야 한다. 3. **섬김의 원리**-그리스도의 몸은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섬김의 손과 발이 필요한데 연합의 역사를 이룰 실행적 기구가 부족하다. 다양한 선교단체와 교회, 복지단체, 영역별은사그룹들이 활성화되어 서로 서로 섬기는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

2009, 불가능한 가능성에 도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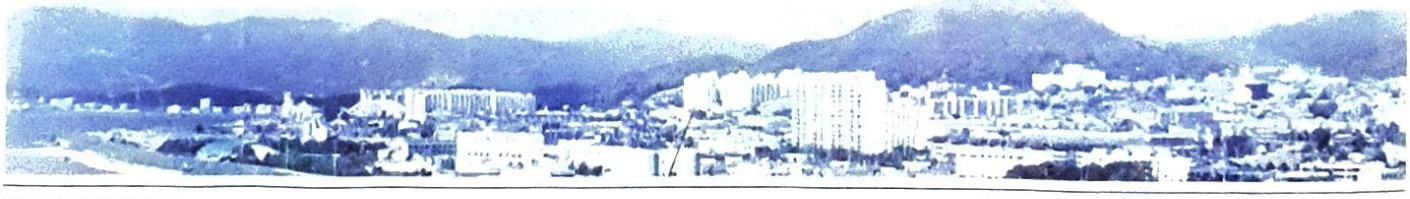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2009년 성시화운동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면서 몇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1. **인재양성 프로그램개발과 협력** : 성시아카데미를 통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다양한 연령대와 관심별 주제에 눈높이를 조정한 맞춤형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리더십교육이 필요한 단체와 협력하여 위탁교육을 시행하고자 한다.
2. **실천 가능한 섬김전략개발** : 교회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터전 및 지역에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서 개교회는 성시화운동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개교회 성장에도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3. **학문적 성시도시 모델추구** : 춘천은 성시화의 고장으로써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고속도로 및 전철복선화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진다. 춘천은 자연자원은 취약하지만 지식기반산업을 유치하여 인적인프라를 풍성하게 갖춰 21세기형 친환경 첨단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춘천을 성시화를 연구 · 논의하며, 학습할 수 있는 학문적 성시도시 모델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4. **대외 및 국제협력기능의 강화** : 현재 성시화운동은 국내 · 외의 여러 곳에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영역별, 총체적 도시선교라고 하는 동일한 선교원리를 추구하는 다양한 그룹들과 친밀한 교제와 나눔을 통해 춘천성시화운동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성시화운동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으로 전개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 많은 관심과 기도의 풍성한 후원, 아낌없는 물질적인 지원이 있을 때 춘천성시화는 앞당겨질 것이다. 지금까지 적극적인 협력과 후원을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지면을 통해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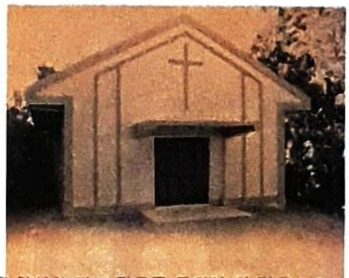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정 재 호 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필리핀에서 날아온 기도편지

필리핀 민도로에서 사역중인 『안 창 원 선교사』





◆ 교회 봉헌후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08년도 어느새 지나가고 2009년 새해의 문턱에 다가와 있습니다. 2008년 한해를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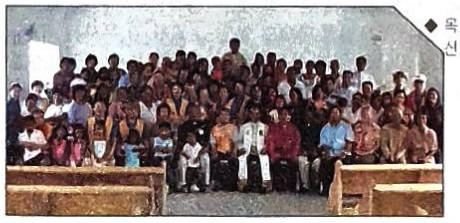
선교사역과 도움의 손길들

지난 7월 롬블론 지역에 2개 교회 봉헌식을 하였습니다. 파실라곤(Pacilagon) 지역과 오종안 시(Odingan City)에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하였습니다.

8월에는 연세대 원주의대 이규재 교수님과 군의관으로 수고하고 있는 김성래 선생님, 그리고 소아과전문의 최우진 선생님과 IVF 형제자매들이 한 주간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의료 봉사를 해 주었습니다. 이 의료선교를 위하여 묵묵히 수천만 원의 의약품을 지원하여 주신 임재용 권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에는 3일부터 7일까지 이곳 필리핀 남서 연회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 신학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동 민도로 서 민도로 그리고 롬블론 마린두케 일리 섬에서 35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아주 열심히 강의를 들었습니다. 신학원을 위하여 김영원목사님(춘천 우두감리교회)께서 무더위와 싸우시며 열심히 강의하여 주셨습니다. 신학원은 매년 우두교회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춘천신성교회에서 한방 의료선교를 지원하여 주셨습니다. 김창수 감독님과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여 주시고 박우림 집사님(대추나무 한의원)의 헌신적인 진료가 현지 교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 하였습니다. 또한 동 민도로의 모교회인 로하스 현지 교회를 후원하여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로하스(Roxas)감리교회는 동민도로 지역의 모교회와 같은 교회로 4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 지역 선교를 위하여 귀중하게 사용될 것으로 믿습니다. 2009년 1월 중순에 봉헌식을 앞두고 미장 마감, 페인트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공예배를 마치고 의료선교 도중에 환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시고 기도해주신 김창수 감독님과 침술로 봉사하신 박우림 한의사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2008년에 많은 교회를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도로 섬과 롬블론 섬 복음화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목회자 신학원



◆ 김창수감독 방문



안수하는 김창수 감독



침술봉사하는 박우림 한의사



의료선교

무릎선교로 동참해주세요.

민도로 선교관에는 치과와 내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 진료를 위하여 10년 동안 아무 조건 없이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여 주시는 이규재 교수님(연세대 원주의대)과 이병직 장로님(당진지방 고산 감리교회)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교수님은 99년 민도로 사역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년에 1회 이상 필리핀을 방문 하시고 의료 진료로 봉사 하여 주고 계십니다.

민도로 선교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로하스교회 성전 봉헌이 아름답게 마치도록.
2. 서 민도로 선교관 공사가 은혜가운데 잘 진행 되도록.
3. 성령의 충만을 입어 힘써서 사역하도록.
4. 자녀들의 건강과 필요한 학비를 채워주시도록.
5. 경제위기로 디가온 고 환율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6. 열대질환 진료소를 통하여 치과와 내과 진료 및 구충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고 진료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이 치료 되도록.

지금까지 사랑과 헌신으로 후원하여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드리며...

필리핀 민도로에서 안 창 원 선교사 드림

[연락처 : Tel. 63-46-416-2922/63-918-345-9213
Email. address:missionphil@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은행: 301-21-0623-867 예금주 안창원]

2009학년도 황동 성경전문대학 안내

황동 성경 전문대학은 황동 노회 부설 평신도 신앙교육 기관입니다. 황동 노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측)에 소속된 노회입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측)는 서울 사당동 총신 대학(www.chongshin.ac.kr)과 총회 신학 대학원(www.css.ac.kr)을 통해 목회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측)에는 약 136개의 노회가 있으며, 황동 노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측) 소속 노회중 하나로 약 250여개의 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동 성경 전문대학은 1년 12과목, 3년간 약 80학점을 커리큘럼으로 운영됩니다. 매년 1월 한달 간 집중 교육으로 3년간 진행되며,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 자격을 갖추어 기간까지 신청하시면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금년 춘천은 1학년 과정입니다.

1. **입학자격** : 세례교인 이상, 출석 교회 당회장 추천이 있는 평신도.
2. **제출서류** : 1) 입학(수강)원서 1통 (본교 소정양식)
   2) 당회장 추천서 (입학원서에 있는 양식)
   3) 사진 3매 (증명사진 2매(원서1매부착), 명함사진 1매)
3. **원서교부 및 접수** : 2009. 1. 5.까지
4. **교육기간 및 시간** : 2009. 1. 5 ~ 23 (매주 4일 수업 : 월, 화, 목, 금/ 매일 저녁7시~10시, 저녁식사 제공)
5. **졸업 및 수료예배(예정)**
   서울지역은 본교 : 2009. 2. 7(토) 오후 5시 새한교회
   대구분교 : 2009. 2. 9(월) 오후 5시 애양교회
   춘천분교 : 2009. 2. 7(토) 오후 5시 춘천 중부 교회
6. **교육장소**

분 교	동 부	서 부	북 부	한 남	관 악	남 부	대 구
장 소	동서울	신일	북성실	남현	영주	춘천중부	애양
분교장	박범중	김 현	이천희	송영식	김영길	이무중	김승광
분교교무	한재웅	정병업	고봉환	이형노	한희철	김원중	박순권

7. **금년수업(총12과목,26학점)** : 시서총강(2) 이사야서(2) 아동설교(2) 중세교회사(3) 로마서(2) 신명기(2) 사도행전(2) 교의신학/구원론(2) 성령론(2) 목회서신(2) 교회행정(3) 예배모범(2)
8. **수 강 료** : 30,000원(교재 및 저녁 식사대 포함)
9. **기 타** : 춘천지역은 **춘천 중부교회(☎252-3616,후평1동 301-11)**에서 수업하며, 춘천지역 황동 노회 소속 교회로 금번 성경전문대학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 교회는 예강교회(정명훈목사), 예담교회(권기찬목사), 우리교회(김원중목사), 주함교회(이병철목사), 춘천 중부교회(김덕용목사), 화목교회(문충식목사)입니다. 원주 지역은 원주 서광교회(송점범 목사)입니다.

황동성경전문대학
학 장 : 임익곤
이사장 : 박계윤
교 무 : 정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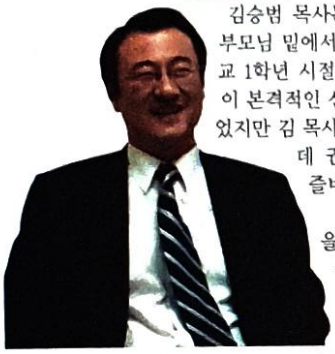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교회

춘천제일교회는 지난 1992년 3월에 창립된 교회이다. 젊은이 사역과 선교사역으로 유명했던 춘천제일교회는 4년 전 김승범 목사의 부임 이래 청·장년의 균형있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교회를 지향하며 부흥을 준비하고 있다. 그 아름다운 변화와 부흥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자.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춘천제일성결교회(김승범 목사)편입니다

김승범 목사



김승범 목사는 서울 출신으로 불교와 유교를 신봉하는 부모님 밑에서 2남 5녀 중 막내로 태어나고 자랐다. 중학교 1학년 시절, 막내 누님과 함께 이웃 교회에 출석한 것이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출발이었다.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지만 김 목사의 오랜 기도를 통해 지금은 일가 친척가운데 권사(모친), 장로(형님) 등 신앙의 거목들이 즐비하다고 소개한다.

김 목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군 생활을 마쳐갈 무렵이었다. 청년부 겨울수련회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작정 철야기도에 돌입한지 13일째. 성령의 뜨거움과 함께 "내 양을 먹이라"(요21장 15절)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뒤로도 2번의 분별과정을 통해 신학대학원에 진학했고, 졸업 후 강남성결교회와 동춘천교회, 인천 성암교회에서 사역하였다. 특히 인천 성암교회에서 부목사로서 보낸 10년간의 경험은 목회에 대한 철학과 정신을 다시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4년 전, 춘천으로의 부르심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의외의(?) 인도였다. 10여 년 전 동춘천교회의 경험을 통해 젊은이 사역과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고, 춘천과의 인연은 더 이상 맺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분명한 뜻과 선한 계획을 가지고 김 목사를 춘천으로 재차 인도하셨다.



2008년 단기선교

제일교회의 제자훈련 사역

김 목사는 제일교회에 부임하자마자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으로 세우는 제자훈련 사역에 매진하였다. 김 목사는 전형적인 제자훈련학교(DTS)의 모델에 그동안 축적한 자신의 노하우를 추가하여 강도 높은 말씀 훈련과 성품 훈련, 극기 훈련을 병행하였다. 특히 청년들은 민족복음화의 못자리판이라고 믿고 새벽시간과 밤 시간을 이용하여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만들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고 한다. 중소도시의 청년사역은 여타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김 목사는 지난 4년을 평가한다. 대도시와는 달리 일자리 문제로 졸업 후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대형교회 선호추세, 예배외의 활동에 대한 소극적 태도로 초기에는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지금은 제일교회만의 노하우로 괄목할만한 열매를 거두고 있으며, 청년들은 이 시대의 주역으로서의 사명감과 함께 '평생 1,000명의 어린이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운동'과 '1000명의 선교사 후원', '200명의 선교사 파송운동'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매년 2차례씩 열리는 단기선교를 통해 그동안 태국, 일본, 필리핀 등지를 다녀왔으며, 국내전도를 겸한 '거지 순례전도운동'을 동시에 펼쳐 나가고 있다.

또한 김 목사는 최근 청년교육과 아울러 장년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목사는 전임자였던 박상철 목사(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목회)의 춘천교육대학 중심의 젊은이 사역을 계승하면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의 균형을 위해 그동안 부족했던 장년부 사역에 3배나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신구약 성경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제자훈련 코스와 하나님의 성품학교, 말씀묵상 나눔반, 양육기초반, 뚝방전도팀 구성, 오르락전도팀 구성, 이슬비전도, 호스피스사역훈련 등이 장년을 위해 넓게 열려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김 목사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봉사에 힘쓰는 교회를 추구하면서도 영혼구원과 사람의 변화에 모든 목회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도의 방식도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를 기다리는 소극적 방식을 피하고, 찾아가서 전도하는 적극적 전도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교회내의 〈오르락 전도팀〉은 안마산을 중심으로 등산을 좋아하는 교우들이 생수와 녹차 등을 준비하여 매주 산행을 통해 등산객들을 전도하고 있다. 〈뚝방전도팀〉은 학곡리에서 공지천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중심으로 매주 명합전도지와 복음 소식지를 나누어주고 있다. 전도팀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오는가에 관계없이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4:2)는 말씀에 교회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김 목사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야학운동, 기숙사 건립을 꿈꾸고 있다. 특히 교회 내에 포진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젊은 인재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아랫세대를 도울 수 있다면 각 분야, 각 세대에 걸친 복음운동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 복음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김승범 목사와 제일교회 교우들이 있기에 진정 하나님나라는 더욱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이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 영혼의 양식

확신으로 2009년을 시작합시다!

시편 91:14~16



신성균 목사
(순복음 열린교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 91:14-16)

대망의 새해 200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와 한편으로는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혼의 고향을 소유하여 언제라도 돌아갈 곳이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요일 1:3, 고전1:9). 이러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희망, 꿈, 비전, 용기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어깨를 펴고 두 눈에 꿈을 품고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의 모습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과거 일제점령, 6·25, IMF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세계 속의 민족으로, 세계 제2선교사 파송국으로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가깝게는 지난번 북경 올림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신실한 크리스천들의 기도와 땀을 메달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미스코리아 경선대회 후보들의, 많은 학생들의, 사업과 직장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의 간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점일획도 틀림없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해를 비롯한 과거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강 문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장수하게 함으로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85세가 되어도 40세와 같이 헤브론 적지를 공격하여 차지하는 노익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세는 120세가 되어 죽을 때에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와 의이고 마태복음 6:33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필요한 것을 주시며 우리의 구한 것 이상으로 채워 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북통일의 열매를 맛보는, 축복의 땅 강원도에, 희망이 강같이 흐르는 춘천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으로 부흥의 역사가 꽃이 피는 해가 될 것을 믿어봅니다.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해 가 될 것을 믿습니다.

- **2009년도 우리의 목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기,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기**
- **2009년도 우리의 확신: 하나님의 건지심, 높여주심, 영화롭게 하여주심, 응답해주심, 장수로서 만족하게 하여주심**

| 사색의 창

교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들, 그들의 눈을 통해 교회를 바라봐야…



김희균 목사
(아웨신학교 춘천캠퍼스 교무처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춘천 도성! 교육현장의 작은 부분을 직접 담당하는 필자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 곁을 떠나는 현상이 많음을 보면서 이를 안타깝게 여기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교회를 잘 출석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 같다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대부분 교회를 멀리하는 현상들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성경을 처음 본다는 학생들이 많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지상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전파에 힘쓰라는 그 명령을 수행치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참고로, 필자가 섬기는 학교에는 기드온협회 춘천지역 장로님들께서 매년 성경을 보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2008년에도 1학년 전교생에게 성경을 전해주며 인생관,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전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학교와 여러 청소년 관련단체를 통해 만나는 춘천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은 너무도 자신감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면서 새벽이슬 같은 순수와 사랑과 패기, 열정, 당당함은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할까요?

조선시대 송강 정철이 지은 "관동별곡"을 보면 금강산 봉우리마다 어리고 맺혀 있는 맑고 깨끗한 기운을 훑어다가 인재를 만들고 싶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정말 이 시대가 그런 인재를 원하는 시대일 터인데, 우리 청소년들은 우울하고 너무도 작은 일에 매달리는 현실 같아 안타깝습니다. 물론 어른들이 물려주는 삶이 그들을 힘들고 좌절케 하며 불행하다고 느끼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 청소년들은 주의 자녀답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 도전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그들을 양육하고 인도하는 사역을 담당한 부모, 교사, 사역자들이 중요합니다.

돈과 명예, 권력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버린 상황, 성공신화에 젖어, 참다운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지 못하는 교회 현실, 종교편향 교육 지침, 하나님의 창조론을 주장치 못하는 현실, 문신과 피어싱, 음주와 흡연, 지나친 노출과 치장...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 어른 세대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며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과 기도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저들을 행복하게 해 줄 요소는 점점 많아지며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다양함이 우리 청소년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며 탈기독교화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춘천지역의 크리스천이 답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청소년들의 관심이나 호기심 끌기만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나 일터나 여러 상황 속에서 직분과 달란트를 받은 자로서 사랑의 종노릇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기성세대 누구도, 특별히 크리스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신화에서 벗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의 가치관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젊은 세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반대하며 벗어나려는 시각에서 세상을 볼 지혜도 필요합니다. 다원주의를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을 저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의 눈을 통해 교회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2009년도 새해는 더욱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교회마다 가득차고 넘쳐 새벽이슬 이런 일들이 춘천도성에, 각 섬기시는 교회마다 가득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독자 투고 사색의 창은 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곳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방법 : hc1260@hanmail.net (기사투고) T.255-1260-1 F. 033)257-1260

로임클리비 (Royim Clibi)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주제 : 변화

- 일 시 : 2009. 1. 19 ~ 22일 (3박4일)
- 장 소 : 가평 장충단성결교회 수양관
- 강 사 : 로임클리비 목회자 및 각 분야 전문가
- 회 비 : 6만원
- 대 상 : 초등학교 졸업생부터 고3까지
- '로임클리비 (Royim Clibi)'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란 뜻으로 춘천지역을 비롯한 원주, 여주에 있는 교회들의 아름다운 연합모임으로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 수련회에 참가를 신청하시거나, 문의사항은 010-2061-2161(김원중목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09 통일비전캠프

"통일의 새 나라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캠프 안내]
기 간 : 2009년 2월 2일(월) ~ 7일(토)
장 소 : 팀수양관(서울 불광동 소재)
참가비 : 12만원(5박6일) ※부분 참석 가능
대 상 : 기독 대학생 및 청년, 장년
공동주관 : 부흥한국(02-824-3330), (사)평화한국(02-515-2633)
공동주최 : (사)평화한국, 부흥한국, 북한선교연대, 북한연구학교(NKSS), 통일기도회, GLC, PN4N, CO-GKB, NK100일 중보기도연합, 쥬빌리연합기도운동

[주 강 사]
김명혁 목사 - 강변교회 원로/선교목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박종화 목사 - 경동교회 담임/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홍정길 목사 - 남서울은혜교회 담임/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 회장



약한데서 완전하여진 사람들

유치원협회 회장 김형기 권사(춘천유치원) · 나래어린이집 정화자 권사(신성감리교회)편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막10:14)."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이다(마18:3-4).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마18:14)."고 가르치셨다. 여기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어린아이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두 부부를 만났다.

높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롬12:16)

길을 가다보면 불교와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대형버스를 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영이 속에서 격동하여 기도하게 된다. 또한, 말씀을 읽으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다. "여호야긴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팔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통치하며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대하36:9) 겨우 여덟 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같은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는 하나님을 구하다니(대하34:1-3) 비록 아이의 경우에도 그가 행한 것으로 그가 한 일이 순수한지 옳은지 알 수 있다.(잠20:11)

김형기 권사와 그의 아내 정화자 권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춘천유치원/석사2지구, 나래어린이집/후평3동)을 운영하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22:6)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거룩한 성경을 가르치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며, 그들의 부모들에게도 담대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증거 하며 사는 신실한 자들이다. 그들에게 베푸신, 또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보자.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다(고후1:9)

집에 의해 거룩케 될 수 있었지만(고전7:14)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남의 흉을 보는 것이 싫었고, 목사님들의 다툼을 보면서 오히려 완악해져 회개로 인도함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서야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정화자 권사는 고백한다. 그래서 회심한 후 처음으로 한 기도가 바깥사람들이 나로 인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언행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대접할 것조차 없었을 때, 구역예배 때면 성경 읽기로 구역에 도움이 되고자 날마다 성경만 읽었다고 한다. 힘에 부치도록 심한 압박과 고통 중에서 철야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초신자 정 권사는 40일 철야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크신 손길로 일어서기 시작했다.



나래어린이집 미칭밴드 행사

춘천에 이사 오기 전 서울에서 다니던 모 교회는 성도들 모두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고, '제주, 강릉, 부산 등지에서 있어도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고, 1시간 전에 예배당에 가지 않으면 본당에 들어갈 수 없는 영이 뜨거운 성도들'이었다.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초를 닦은 것이 이후에도 큰 힘이 되었다. 사고로 아들을 잃고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다.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슬퍼하지 말라며 위로했다는 김형기 권사. 분명 이들 부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축복을 맞보게 되었으리라.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다(딤전6:17)

그들은 기도를 통해 응답받지 못한 것이 단 한 가지만 빼고 모두 하나님께서 들어 주셨다고 말한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캠프나 소풍을 갈 때, 아이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 바로 전까지 오던 비도 그쳤다고 한다. 그러면 아이들도 본인이 기도해서 비가 그쳤다고 기뻐한다. 이뿐만 아니라 기적 같은 일도 많았다. 일본에서 유학중이던 딸을 통해 일본의 유치원과 자매 결연을 맺고 홈스테이를 통해 그들의 문화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가기로 하였다. 비행기 표도 기차표처럼 바로 사는 줄로만 알고 미리 예약해야 하는지조차 몰랐던 두 부부. 40여명의 발이 묶이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만을 믿고 무대포(?)정신으로 기도하며 정 권사는 항공회사로 직접 찾아간다. 무조건 비행기티켓을 요구하는 정 권사가 황당했던 직원왈, "혹 높은 분을 알고 계시나요?"라고 묻더란다. 그래서 가장 높은 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단다. 마침 일본행 40석 예약이 취소되면서 티켓 40장을 기적처럼 가지고 돌아왔다. 항공사 직원도 이런 일은 처음이란다. 유치원 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을 때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 다시 그들에게로 기회가 주어졌다. 또한, 돈 한 푼 없었는데도 주님은 유치원 부지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셨고 살 집도 주셨다. 그리고 유치원을 개원하고 단 몇 명을 앞에 두고서도 교육청으로부터 허락받은 정원 150명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도 그 숫자의 아동을 보내주셨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일로 자녀들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던 김 권사 부부는 자녀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만 했다. 그랬더니 큰 딸은 일본에서 6년 동안 전액 장학금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응답받지 못한 단 한 가지가 바로 아들의 죽음이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다시 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려 돌려주시지 않으셨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난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과 같은 사랑을 알지 않고는 모든 것이 유익이 없음을 가르쳐 준 것이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때그때 베풀면서 사는 것과 첫사랑을 늘 회복하고 사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란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남은 인생의 간절한 바람이다. 이들을 통해 어린 영혼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취재 이영규, 사진 김미경]



2009학년도 자연유치원 신입생 모집 안내

가 입학안내

1) 입학연령 : 2003. 3. 1 생부터 2006. 2. 28 생까지
2) 구비서류 : 본원 입학원서 1통, 입학금. 3월분 교육비, 반명함판 사진 3장.
3) 방문상담접수 : 오후 4:30 ~ 6:00까지
4) 참고 : 본원은 저소득교육비지원비를 받는 기관입니다.

나 본원 특강교육

본원은 타원과 달리 담임선생님은 유아교육과정만 가르치시며, 특강과목은 그 분야 **최고의 강사분**이 가르치십니다.

1) 순수크레파스화 (매년 전국아동미술대회 참가 - 출품료, 상패, 트로피, 메달 등 본원에서 전체부담)
2) 수채화/일러스트
3) 영어특강(원어민)
4) 음악/리코더
5) 체육/태권도
6) 음악줄넘기
7) 웅변/마술
8) 과학/수학
9) 버그토이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41-5511 www.cyworld.com/jysince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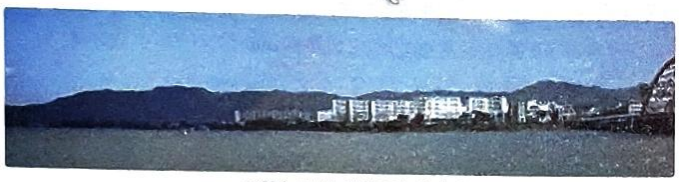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분지 종주 산행 개념도



우리 곁에 있는 山 종합편

18개월 동안 춘천을 둘러쌓고 있는 산들을 살폈는데, 전체를 한 눈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했다. 그래서 그 동안 연재되었던 자료들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 북쪽 능선 (수청령고개, 수리봉)

사진에서도 보듯 능선이 거의 일자형이다. 그래서 산 이름을 붙이지 못한 듯하다. 수청령고개로 불리고 있다. 600m 수준에서 조금의 높낮이로 능선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오른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650m 높이의 수리봉이다. 더 높아 보이는 것은 앞쪽으로 튀어 나왔기 때문이다. 능선은 수리봉을 지나 용화산으로 가다가 중간에 오봉산 쪽으로 갈라진다. 배후령을 지나 등산길은 이내 오봉산과 경운산으로 나눠지면서 동쪽 능선을 이룬다.



▲ 서쪽 능선 (몽가북계- 몽덕산, 가덕산, 북배산, 계관산)

서쪽 능선은 화악산에서 이어지면서 몽가북계(몽덕산, 가덕산, 북배산, 계관산, 삼악산까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한 능선이다. 수도권에서는 1박2일 능선종주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가평군과 긴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춘천 쪽에서 능선에 접근하기 쉬운 곳은 지암리의 지암고개이고, 춘천댐 매운탕 골짜기에서 삿갓봉을 지나 몽덕산으로 오르기도 하고, 장절공을 지나 북배산에 이르기도 한다. 이 능선의 제일 위쪽에 있는 산이 집다리골 휴양림이 있는 촉대봉이다. 춘천시 안에서 제일 높은 1125m이다. 이 능선 제일 아래쪽은 삼악산이다. 삼악산에서 이 능선이 한 눈에 들어온다. 이 능선은 산불을 대비하여 방화선이 10m의 폭으로 설치되어 있다. 10m 폭으로 나무를 잘라내어 갈대와 풀이 자라지만 겨울에 제초작업을 하면 마치 만리장성과 같은 느낌을 준다. 아울러 겨울철에 능선 종주를 하면 훨씬 편하게 산행할 수 있다.



▲ 동쪽 능선 (경운산, 마적산, 느랏재)

위의 사진은 삼악산에서 본 동쪽 능선의 모습이다. 배후령으로 오르는 길 오른쪽으로 긴 능선이 경운산과 마적산이다. 세월교를 지나 느랏재까지 능선이 이어지고 있다. 경운산이 794m이고 세월교를 건너 느랏재 부근의 정상이 700m 정도의 높이다. 그러므로 동쪽 능선은 V형을 이룬다.



▲ 남쪽 능선 (명봉, 대룡산, 수리봉, 금병산)

남쪽 능선은 느랏재에서부터 명봉, 대룡산, 수리봉(높이 650m, 개념도에 나와 있는 높이가 잘못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춘천의 수리봉은 2개로 샘밭과 원창고개에 위치하고 있다), 원창고개, 금병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이다. 이 능선 안에 구봉산과 드름산, 안마산이 연결되어 있다. 춘천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산들이 모여 있다. 이 능선들을 이어서 춘천 순환등반로가 만들어져 있다. 전문 산악인은 6구간으로 일반인들은 10구간으로 나누어서 일주할 수 있다. 춘천시 홈페이지, 관광포털에 나와 있는 코스 중에서 일반인들을 위한 코스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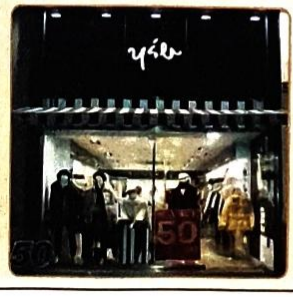
일반인 코스

- 의암댐 → 삼악산 → 5봉 → 석파령 → 덕두원 (3시간 10분)
- 덕두원 → 석파령 → 수성최씨 → 계관산 → 북배산 → 장절공묘 (5시간 30분)
- 장절공묘 북배산 소사나무고목 → 가덕산 → 삼터 → 삿갓봉 → 춘천댐 (5시간 45분)
- 춘천댐 → 수청령고개 → 5봉 → 세미고개 (2시간 15분)
- 세미고개 → 양통고개 → 수리봉 → 7봉 → 배후령 (4시간 55분)
- 배후령 → 경운산 → 임도 → 6봉 → 마적산 → 윗샘밭 (3시간 10분)
- 세월교 → 3봉 → 6봉 → 산불감시탑(8봉) → 느랏재 (4시간)
- 느랏재 → 갑둔이고개 → 헬기장 → 대룡산 → 고은리 (3시간 05분)
- 고은리 → 임도 → 대룡산 → 군부대삼거리 → 수리봉 → 원창고개 (3시간 35분)
- 원창고개 → 봉우이갑림길 → 금병산 → 삼포갈림길 → 금병초교 → 모리정미소 → 3봉 → 드름산 → 3봉 (3시간55분)

[편집위원 고 재 만]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이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 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 시 뉴 욕 운 선 점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예 스 비
예스비 브라운상가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당신을 20대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3-2001
위치 브라운상가 프리머스 극장 입구

예수 안에서 본 예술



이인실 / 은총 / 화선지에 수묵담채 / 120 x 90cm / 1992년 作

눈덮인 산골마을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는 지난듯, 그림속에서 포근함이 배어나옵니다. 작품의 구석구석에서 따뜻한 햇볕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며, 산골 마을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덮은 백설을 작가는 은총으로 바라봅니다. 겨울이 다가기 전에 꼭 한번쯤 찾아나서고 싶은 산골마을의 진경속으로 작가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 이 관 형]

세 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흐르는 세월과 함께 흘러가는 나그네다.

만물속의 티끌과 같은 미세한 한 분자이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不可分)의 존재다.

세월과 함께 흘러가야 한다.

이것이 인생이다.

새롭게 탄생하는 새 생명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역사와 함께 모습을 감춘다.

날 때(出生)가 있고, 성장하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그리고 본향으로 가야한다. 때(세월)의 흐름 따라 가야만 한다.

세월을 앞서 갈수는 없다.

그런데 세월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적응 자 지각생은 꽤 많은 것 같다.

지각생은 성공자는 아니다. 때를 놓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때를 추격해야 한다.

때를 놓치기 전에 지금, 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기여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라고 그 누군가가 외치고 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자!

항빙 없이 표류하지 말고 푯대를 향해 주목하지!

이 세상 어둠을 밝히는 참 빛 되시는 그분을!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3절~14절)

– 시. 최 영 진 장로(춘천한길교회)

| 좌충우돌 건강이야기 13

노인에서 가장 많은 질환은 무엇일까?



고 석 연 (가정의학과)

1970년대만 해도 아이들이 목욕탕에 다녀와서는 "나 오늘 연중행사 했다." 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는데,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아니면 목욕탕에 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신체검사 하는 날이라고 옷을 벗기면 온 몸에 때가 덕지덕지 앉아 있는 아이들이 많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매일 아침마다 손등의 때를 검사하는 일을 했었다. 참 재미있는 기억이다. 그러나 요즘은 생활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서 집집마다 욕실을 갖추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시설의 공중목욕탕들이 동네마다 들어서 있다. 찜질방이나 온천에 다니는 것이 문화생활로 자리 잡은 지는 이미 오래여서 노인들 중에는 이런 곳을 매일 매일 방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생활환경의 변화는 당연히 질환의 변화를 초래한다. 위생이나 청결이 개선됨에 따라 세균성 질환이라든지 기생충 질환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 특별히 전염성 질환들의 대유행 행태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유병률이 증가한 질환들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아토피' 이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 중에서 대표적인 이론이 기생충이론이다. 기생충이나 세균에 노출되는 횟수가 적을수록 아토피가 잘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 이론은 아이들을 너무 청결하게 키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말한다.

위생이나 청결이 개선됨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 바로 노인들이다. 노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쓴다. 나이 들면 몸에서 냄새가 나고 비듬 같은 인설이 시도 때도 없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들어서 매일 같이 샤워를 하거나 목욕탕에 다니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 그런데 노인들에게 잦은 목욕은 결코 몸에 좋지 않다. 노인이 되면 피부의 수분 함유가 감소하고 피지분비가 감소되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건조한 노인들의 피부는 자주 씻거나 비누를 많이 사용하면 가려움증이 쉽게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동계소양증' 이다. 주로 겨울철에 가려움증이 심하기 때문에 동계소양증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필자의 병원에도 5년 동안 가려움증 때문에 피부과약을 매일 같이 복용하던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다. 자세히 진찰하는 과정에서 가려움증의 원인을 알게 됐는데, 그건 다름 아닌 잦은 목욕과 때밀이 수건의 사용이었다. 물론 처방은 목욕 횟수를 줄이고 때밀이 수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수일 만에 좋아져서 먹던 약을 끊게 되었다.

70세 이상 노인의 약 50% 정도가 동계소양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2명중에 1명이 겨울만 되면 가려움증으로 고생을 한다고 하니 노인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은 아마 '동계소양증' 일 것이다. 물론 치료는 간단하다. 몸이 건조하지 않게 유지를 하면 된다. 잦은 목욕 횟수를 줄이고 때수건 사용은 금한다. 비누는 순한 것이 좋고 사용횟수도 줄여야 한다. 주로 필자는 접히는 부분만 비누칠을 하라고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습이다. 보습을 잘 하려면 샤워보다는 통목욕이 좋다. 목욕통 속에 몸을 담그고 10분정도 지나면 수분이 피부에 흡수되는데 이 상태로 몸을 가볍게 닦고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면 된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창피한 것도 아니고 흉볼 것도 아니다. 몸에 병이 나도록 자주 씻을 필요도 없고 상처가 나도록 때를 밀 일도 없다. 자연적인 변화를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 젊은 우리들도 나이 들어가고 있다.

새해!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임목사의 새해계획 세우기

임 성 택 목사

계획이 왜 필요한가?



서울에서 목회한지 3년째이다. 아직은 목회 초년생이라 담임목사님의 목회방침과 선배 부목사님의 지도에 따라 사역하기에 목회계획이라든지, 신년계획이라는 것이 생소하다. 그런데 부목회자로서 배우는 입장과 담임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사역을 하면서도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특히 심방이나 장례식을 참석하기 위하여 운전하게 될 때, 특히 서울이라는 혼잡한 교통으로 유명한 도시에서 사역할 때에는 네비게이션을 믿었다간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터넷에서 지도를 검색한 후 그 지도를 출력해서 네이게이션과 비교하여 보면서 가는 방법이다.

인생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 내가 가는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다면 언젠가는 가겠지만 지름길과 그 시간대의 교통 상황을 파악한 후 막히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은 경험에 의한, 정보에 의한 계획이 있어야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계획이 필요한 것 같다.

'로버트 라이킨'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실패를 계획한 것이다"라고 했고, '로버트 나델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어제보다 나은 하루를 만들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다"라고 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한 것이다"라고 말 할 정도로 좋은 계획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큰 틀에서 2009년이 나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자신이 서 있는 시점과 목적지를 알아야 2009년 한 해 동안 내 삶에 주어진 과제를 감당하며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그것도 많은 것을 계획하고 성취되지 않아 실망하는 것 보다는 중요한 것 한두 가지를 세우고 실천할 것을 권한다. 사람들은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천안대의 류호준 박사는 느낌표, 물음표, 마침표, 쉼표를 설명하면서 인생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렇다. 너무 많은 계획 때문에 내 삶이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메말라지는 것은 좋지 않다. 삶을 살면서 느낌표를 찍으면서 또한 심오한 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음표도 던지면서 좀 누리는 삶(?)을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쉼표와 마침표의 의미에 큰 도전을 받았다. '올 한해 쉬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찾는 쉼표의 의미와, 매년마다 '이것은 이루어야 하는데, 이 기도제목은 이제 마쳐야 하는데' 하는 마침표의 일을 찾아서 그 일을 꼭 그 해에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나는 2008년도의 계획이 두 가지였다. 그것은 '결혼'과 '목사안수'. 이 두 가지 목표가 마침표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이것만은 올해 안에 해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했다. 좋은 남편이 되는 것과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은 평생 동안 해야 할 쉼표의 일이지만, '결혼'과 '목사안수'는 2008년도에 꼭 해야 할 일이라는 목표를 정했고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역량을 다 했다.

누구의 계획대로 살 것인가?

특히 결혼에 있어서 나는 많은 계획을 세웠고 노력을 하였지만 내 계획이 결혼을 이루게 한 것은 아니었다. 나의 계획은 많은 맞선과 만남을 기대하였지만 그 일은 잘 되지 않았다. 특히 월요일은 목회자들이 쉬는 날이며 제 인생의 목표를 위하여 써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주 화요일 날 하는 전도행사 때문에 매주 월요일은 50-60세 되시는 권사님들과 시장에서 장 보는 일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많은 불평이 있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선해야 된다는 믿음이 생겼다. 10주간 매주 월요일 날 가락시장, 경동시장, 노량진 시장을 다니면서 결혼을 위한 맞선과 만남을 주선 받는 일은 가질 수 없었다. 즉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일은 되지 않았다. 그런데 기적적인 일이 생겼다. 10주간의 전도행사가 다 마친 다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것처럼(창 2:22), 현재의 부인을 만나게 되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나쁜 것은 아니다. 나는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때론 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내 계획을 이루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임성택 목사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초대간사로 사역하였으며, 총신대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영동중앙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

예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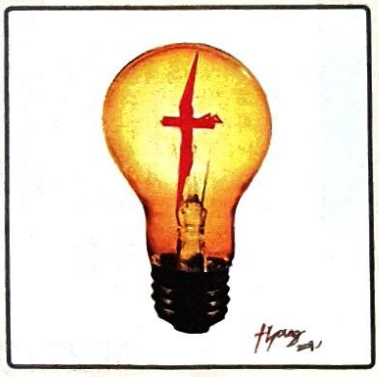
가능성과 기회

어느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담임선생님이 결근을 해서 한 여선생님이 대신 임시 수업을 맡았다. 여선생님은 '이 반에서 노래 잘하는 학생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일제히 김빙철, 조순학이라고 외쳤다. 물의 노래를 들은 선생님의 표정은 그리 밝지가 않았다. "또 다른 학생이 없니? 그러면 이 반의 반장 나와 봐" 반장은 체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지만 노래는 정말 아니올시다 였다. 그러자 선생님은 "부반장!" 하고 말했다. 부반장은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당황해 했다. 하지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일어나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선생님과 아이들은 모두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 이 학생은 자기가 이렇게 노래를 잘 하는지 몰랐다. 그 후 아이는 학교를 대표하는 노래꾼이 되었다. 이 사람이 지금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총장인 이강숙이다. 새해에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가능성과 기회를 따라 가자.

[편집위원 최상도]

성 시 만 평

이 관형 · jysince93@hanmail.net



2009년 내 마음의 등불

춘천성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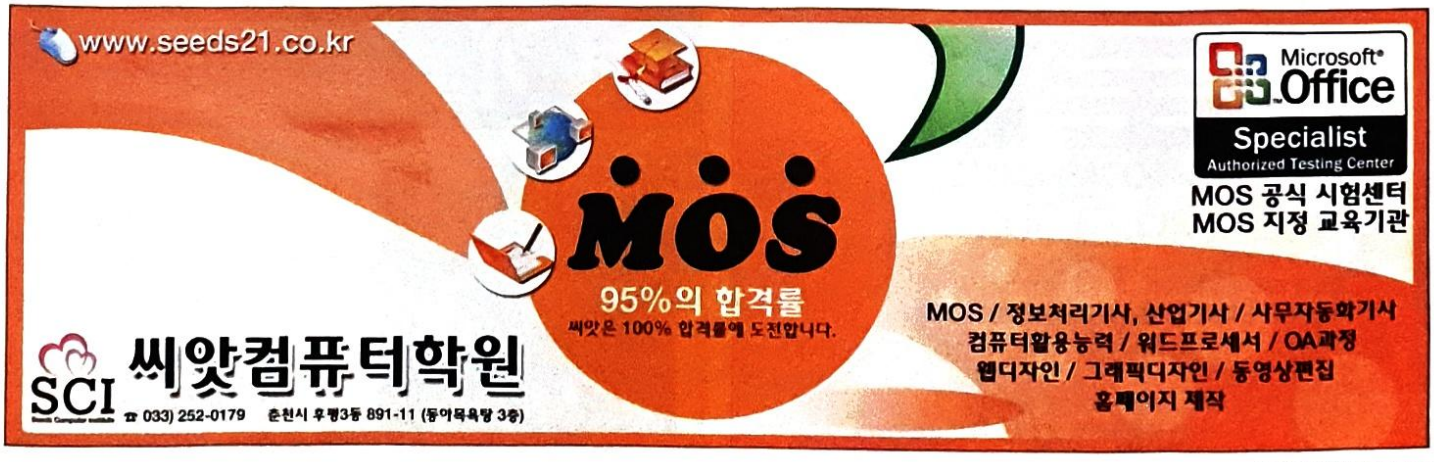
편집위원장 : 최 영 조

편집 위원 : 조 영춘 최 상도 정 재호
이 영규 권 기찬 고 재만
김 춘배 이 관형 김 미경 조 나단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Y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희망을 꿈꾸는 곳
후평3동 뒤뚜르어린이도서관





"책은 세상으로 열린 창문이다."
"책은 동거움이다."
"책은 만남이다."
"책은 친구요, 인생의 반려자다."

책에 대한 미사어구는 세상에 정말 많이 있다. 그만큼 책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우리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책이 많은 도서관은 집에서 멀리 있거나 금방 문을 닫는 학교도서관외에는 별로 없다. 날마다 새로운 책은 계속 나오지만 그 책을 다 구매해서 집에서 읽게 해주기는 어렵다. 그러면서도 내 아이가 책을 읽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하지만 요즘의 아이들의 삶은 학원이 지배해버린 지 벌써 오래고 낮 시간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소리를 듣기는 참 힘들다. 맞벌이 부모의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시간을 대부분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TV시청으로 아니면 집 바깥의 반갑지 않은 놀거리 문화를 찾아 돌아다닌다. 그런데 여기 우리의 아이들이 좋은 친구 집이나, 책 많은 이웃집에 놀러 가듯 쉽고 편안하게 찾아가서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으며 자신의 꿈과 이상을 스스로 발견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생겼다.

2008년 2월 후평 3동에서는 내 아이에게 맘껏 책을 읽으며 놀이터를 만들어 주자는 생각을 함께 하는 주민들과 춘천시민연대어린이도서관분과 회원들이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희망 갖기 모임"을 시작하였다. 일일후원행사, 바자회를 통해 마중물인 재정을 마련하고 후원자들과 지역주민들의 도움으로 지난 8월 23일 뒤뚜르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뒤뚜르어린이도서관은 개인 누구의 것이 아닌 내 아이와 남의 아이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운영하고 있다. 그 엄마들이 후원자이며 자원활동가로 날마다 사서 도우미를 하면서 밝은 얼굴로 아이들을 맞이한다. 아직까지 춘천시나 그 어떤 단체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우듯이 맨손으로 도서관을 개관한 것만으로도 세상은 아직 밝고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뒤뚜르어린이도서관 지성희 관장(50.여)은 "어린이도서관은 아이들이 책을 통해 삶을 살찌우는 곳이다. 또한 어린이도서관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어른들이 같이 모여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지역 문화공간이기도하다. 책을 나누는 일은 꿈을 나누는 일이다. 어린이도서관은 세상 아이들이 책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자랐으면, 경쟁보다 어울림을 배우고 세상에 대한 믿음을 얻었으면 하는 꿈을 함께 꾸는 곳이다."라고 뒤뚜르어린이도서관을 소개했다.

■ 함께 해요!!

힘을 모아 주실 후원자와 '후평3동 뒤뚜르어린이도서관'에서 함께 하실 분들을 기다린다.

* 연락처 : 뒤뚜르어린이도서관(070-8237-8754) 관장: 지성희(010-8255-7698)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kids-lib
* 후원계좌 : 농협 301036-51-031111, 지성희
※ 후원금은 어린이도서관 운영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됨.

■ 책을 기증 받고 있어요!!

1. 1999년 이후 출판된 책 / 2. 전집이 아닌 책
3. 만화와 학습관련 서적은 사양 / 4. 훼손되지 않은 책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세워진 뒤뚜르어린이도서관에서 아이들은 책을 읽으며 그 속에서 자기의 꿈을 찾고 이웃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자료제공. 뒤뚜르어린이도서관]

제2회 춘천기독청년포럼 청년연합겨울수련회 열려



춘천기독청년포럼에서는 2009년 2월 12일(목)~14일(토), 가평 승동수양관에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라는 주제로 청년연합겨울수련회를 개최한다. 주강사로는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예리하게 우리 시대의 기독청년상을 제시해 온 성서한국 사무국장을 지낸 바 있는 최은상 목사이며, 전체특강 강사로는 탁월한 제자훈련가이자 전주서부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노재석 목사이다. 그 외 선택강의 강사진도 청년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기독청년포럼 내부 강사진과 현직 캠퍼스 간사들이 투입된다.

개인의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고민하는 유약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이 수련회를 통하여 어떻게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지를 도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소그룹 성경공부와 활동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시야를 제공하고 폭넓은 나눔과 참여의 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가평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 보다 더욱 아름다운 기독청년들이 생명력 넘치는 기독청년운동을 일으키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춘천기독청년포럼 청년연합겨울수련회에서는 청년들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 일 시 : 2009년 2월 12일(목) ~ 14일(토)/ 2박3일
▶ 장 소 : 가평 승동기도원
▶ 주 제 :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라!
▶ 준비물 : 회비(5만원), 성경, 필기구, 세면도구
▶ 문 의 : 공동총무 이병철 목사(010-6254-3162), 엄기홍 목사(011-366-7845) 회계 이순복 전도사 010-5790-0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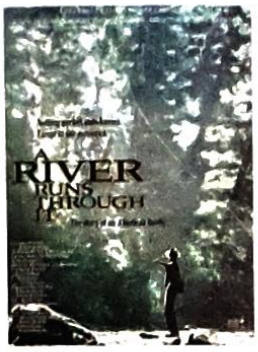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권 승 갑 장로(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 010-4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 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명가 만두


※만두 名人이 빚은
20년 전통의 즉석 손만두
※테이크아웃수제 만두 춘천점
SINCE 1985
춘천 중앙로 농협 앞
☎ 242-8680

기독문화산책 — 영화이야기<19>

흐르는 강물처럼(A River Runs Through It)



15년 전쯤인가 어느 날 우연히 비디오로 보게 된 영화가 있었다. 제목 그대로 물 흐르듯 잔잔하게 전개되는 스토리였는데 두 시간도 더 되는 시간 내내 지루한 줄 모르고 끝까지 몰입되게 하는 힘이 있었다. 명배우 '로버트 레드포드'가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인생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게 하면서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오래도록 깊이 가슴에 남아 있다. 강물 위에서 낚시 줄이 그려내는 오묘한 선과 함께 가족의 깊은 의미, 나아가서 참된 믿음의 모습을 배워갈 수 있는 소중한 영화의 하나였다.

낚시를 통해서 목사인 아버지에게서 배우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배워가는 두 아들. 하나는 순종이요 하나는 반항적인 대조적인 길을 가는 모습에서 성경적인 구조를 느끼게도 한다. 일종의 성장영화인데 반항적인 동생의 말로를 통해 그리고 순종으로 더 성숙해진 형의 모습에서 성경적 메시지를 강하게 감지할 수 있다. '플라잉'이라고 불리는 송어 낚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 우리가 순종으로 인해 뒤쳐지거나 답보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더욱 참된 달란트로 드려질 수 있는데 반해 반항과 자유분방의 생활 속에서 아무리 고도의 달인으로 성장한다 해도 생의 비극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교훈도 배우게 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형제애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의미를 알게 해준다는 점이다.

1990년에 사망한 장로교 목사 노먼 맥클레인의 자선적 소설을 옮긴 이 영화는 수많은 영화에서 주연으로 활동하며 '보통사람들'로 1981년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로버트 레드포드'의 세 번째 영화이다. 1993년 아카데미 촬영상을 수상할 만큼 빼어난 영상미를 보여주고 있다. 울창한 몬테나 주(州)의 숲과 불랙풋 강을 배경으로 멋지게 만들어진 화면은 아름다운 포스터로 만들어져 지금도 걸어놓은 곳이 많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

또 유명한 헐리우드의 명배우 '브래드 피트'가 동생 폴로 열연하는 등 좋은 연기를 선보인 출연진도 돋보이고 무엇보다 여타 영화에서 보여지는 플롯을 따라서 클라이막스라는 절정으로 긴장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시종 세심한 관찰자의 나레이션으로 언뜻 지루하게도 느껴질 만한데도 전혀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잔잔한 감동이 강물처럼 밀려들며 오랜 여운으로 남게 하는 독특한 작법으로 만들어졌다는 데에 평자들의 찬사가 쏟아진 영화이다.





참고로 노먼 맥클레인 목사는 기독교 교리서를 편찬할 정도로 충실한 하나님의 사도였을 뿐만 아니라 사냥과 낚시에도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어 그가 출간한 사냥과 낚시의 텍스트는 고전으로까지 불린다.

〈1992년 작, 상영시간 123분, 모든 연령층 관람가〉

[편집위원 김 춘 배]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저녁 7:30 늘사랑교회에서 성시신문에서 소개한 영화를 상영합니다.

현 시국을 바로보는 눈!

[사진과 함께 하는 중보기도]

선교사들의 사역과 경제문제 | 북한 동포들의 겨울나기 | 가난한 이웃들

1)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고 환율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선교사들에게 전달되는 실제 후원금은 턱없이 부족하기만하다. 일부 선교단체는 환율하락을 기다리며 선교후원을 몇달째 미루고 있는 형편이다. 선교사들의 사역과 후원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위해 기도하자.

2) 북한 해갑들 위한 6자 회담의 난항으로 인해 북한 지원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절대적 식량과 연료 부족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북한 어린이들과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자.

3) 국가경제 위기로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어려울수록 가난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눔의 손길들이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하자.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172242-51-085114
와이씨협 04073-12-009998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화를 위한 3천후원자 모집일
1구좌 개인 2천원 단체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12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광영감리교회
광영장로교회	거성침례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시온성결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장로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양의문교회
예수촌교회	여담교회
주영광교회	주향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일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영성감리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한빛장로교회	평화실로암교회
춘천와이신협	천일현수막
국민일보 춘천지사	영광한의원
제시뉴욕	강원농협선교회
쏘인테리어	등목경기장기요양기관

김기태	김길홍	김리현	김미경
김미경2	김영관	김영명	김영일
김진상	김태숙	김현배	김현철
김희경	류재웅	배진철	박난영
박동환	송난의	신성균	심인섭
안미애	안정숙	엄필남	오용수
원희정	유갑순	유근창	유병준
유성현	이무식	이병연	이병일
이상돈	이순자	이영신	이용규
이원기	이원영	이윤숙	이은수
이정이	이학규	정기영	정재호
정재현	정찬복	조은제	조정일
주승희	최상호	최을용	최치광
한희천	허순영	홍순복	홍순신
황병찬	황정섭	황진식	홍덕기

교회현수막만 합니다
예수님 향기
꼭 필요하시면 그냥 해가세요 (개척미교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천일디자인 T. 255-5722 F. 256-5722
춘천시 효자1동 660-8 (동성교회 앞)
전 천 일 장로 아파치학교설립이사(스쿨) (서울동부고등학교)

2009 원아모집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이 주인인 곳
매일 예배하는 곳
예배가 경성인 곳...
영혼이 성장하는 곳...
기쁨이 넘치는 곳...
유치부
모집대상 ▶ 4세 ~ 7세,
교육내용 ▶ 단계별 한글, 수학, 영어, 음악(리코더), 한자, 과학, 미술, 유아체육
〈오후특별활동 : 피아노, 논술〉
원서교부 및 등록 ▶ 2009년 1월부터 수시모집
초등부 공부방
대상 및 과목 ▶ 초등학생 전 학년 전 과목 중심 (필요한 과목 집중지도, 시험기간 특별지도)
시 간 ▶ 오후3시 이후(상담 후 시간 결정)
꿈과 비전을 가진 진정한 리더를 세우는
베드로 어린이 선교원
입학 및 교육상담 257-5141
(베드로선교센터 4층, 효자2동 봄내병원 내)



투시의 은사를 받은 개 앞에서

이 원 호 목사
소양성결교회/춘천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

서울 근교에 있는 유명한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는 초청이 왔다. 한번은 가고 싶었던 기도원이기에 쉽게 승낙을 했고 기대를 가지고 그날을 기다렸다.

부흥회 날 조금은 일찍 성산을 올랐다. 가슴이 뿌듯하고 왠지 기분이 들떠있었다. 원장은 모처럼 만난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 식사 중 원장은,

"목사님! 저 위에 성전 옆에 올라가 봤어요?"
"아뇨? 왜요?"
"아~ 성전 바로 강단 옆쪽 밖에다 개를 키웠는데 벌써 7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개가 날마다 능력 있는 부흥사들의 설교를 듣고 또 찬송과 기도 소리에 파묻혀 살아서 그런지 요즘은 눈빛도 아상하고 어떻게 보면 투시의 은사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허기야 서당 개삼 년이면 풍 월을 읊는다고들 하잖아요."
"목사님! 문제는 이 개가요 참으로 신실하고 목회에 전념하며 아주 겸손한 목사님이나 진실 된 성도를 보면 벌써 그걸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고 껑충껑충 뛰면서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개떡 같이 목회하고 좀 질이 나쁜 목사들 있잖아요? 그런 목사를 보면 저 개가 정신없이 짖고 물어뜯으려고 덤비고 아~ 지난번에는 어떤 목사가 죽을 뻔했다니까요?"

이 말을 듣고 나니 개가 있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야지, 저녁 집회를 인도하러 올라가면서도 개가 있는 반대편으로 들어가고 개를 피해서 내려오느라고 진땀을 뺐다. 밤에 잠을 자려는데 도무지 잠은 오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듣고 전국을 다니면서 증거하고 있고, 그래도 나에게 맡겨주신 양 무리를 최선을 다해 섬기고 먹이면서 왔는데 내 믿음, 내 헌신, 내 충성을 인정받을까? 한참이고 고민하다가 방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고 조용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발자국 소리를 죽이면서 조용히 성전을 향하여 오르기 시작했다. 어떤 판정이 내려질까? 꼬리를 흔들어줄까? 아니면 기도원이 떠나갈 정도로 짖으면 어떻게 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개집 앞으로 다가가는데 마침 개도 엎드려 자고 있었다. 내가 가까이 가는 것을 알고는 엎드린 채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닌가. 급한 마음으로 두 손을 살짝 들고는 할렐루야! 라고 인사를 올렸다. 갑자기 개가 내 앞으로 걸어오더니 여유 있게 나를 아래에서부터 위쪽을 두루두루 보면서 꼭 성실한 목사인가 아니면 질이 나쁜 놈인가를 보는 것 같았다. 한참이고 두루 보다가 드디어 개가 내 앞으로 와서는 킁! 킁! 그리고 고개를 두 번 끄덕이더니 꼬리를 막 흔들고 내 몸을 비비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는 눈물이 고였고 "아~ 그래도 열심히 뛰어다니며 복음을 증거 했더니 이렇게도 인정해 주시는구나" 기쁨으로 들어가 잠을 좀 자고 새벽 집회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숙소를 향해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눈앞에 번뜩거리는 물체가 내 머리와 가슴을 치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아놈아! 네 믿음과 헌신을 어디 인정받을 때가 없어서 개 앞에 기서 오만가지 아양을 다 떨고 개가 꼬리를 흔들어 준다고 좋다고 가는 네가 목사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보이는 것에 민감해서 이런 바보 짓을 하고 말았구나. 다시 성전 옆으로 올라가 엎드려 자고 있는 개를 힘차게 걷어차고는 성전으로 들어가 새벽집회 때까지 엎드려 처절한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

2009년 허락하신 날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들,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

알려드려요 (교회소식 및 행사내용을 게재해드립니다. 매월 20일까지 연락바랍니다. ☎256-1260)

◆ 어린이전도협회

1) 3일 클럽 전도자훈련
일시: 2009년 1월 5일(월) ~ 9일(금) 숙박
등록금: 20만원 (선착순 40명)
대상: 교사, 아동부 담당교역자 등 중3 · 고등학생도 가능
문의: 253-1443 [http://cafe.daum.net/cefch/]

◆ 예나컴

1) 춘천여고 기독동아리 엘리에셀 집회
일시: 2009년 1월 17일(토) 오후6시

2) 15회 고3 영성훈련
일시: 2009년 1월 2일 ~ 24일 월-금 AM10:00-2:00
장소: 중앙성결교회 중고등부실
등록비: 50,000원 (교재비/간식비포함)
프로그램: 조별큐티 · 나눔, 로마서 성경공부
특강: 선교, 자아발견, 기초신앙훈련
*단기선교: 2009년 1월 29일부터 2주간 / 중국
문의: 244-5400 예스컴클럽 [club.cyworld.com/yescome love]
신유정 010-5422-2321, 박진용 010-8901-7004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나사렛 금식수련회
일시: 12월 31일 ~ 1월 2일
장소: ccc본부(서울 부암동) 문의: 02-755-4393

2) 춘천 ccc 생활훈련
일시: 1월 6일 ~ 24일 장소: 춘천ccc회관

3) 단기선교(아프리카 토고)
일시: 1월 7일 ~ 25일 문의: 252-0542, 254-5776

◆ 예수전도단

1) 춘천 외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춘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봄내병원)
대상: 중보기도를 자원하는 그리스도인
문의: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 IVF

1) 강원 IVF 겨울 수련회
일시: 1월 5일 ~ 9일 장소: 가평 대동교회 수양관

2) 기초신앙훈련(1 년차 이상)
일시: 1월 11일 ~ 16일 장소: 강촌교회

3) 섬김이 훈련(2년차 이상)
일시: 1월 12일 ~ 17일 장소: 춘천 IVF회관
문의: 252-5200

◆ JDM

1) 기독교사수련회
일시: 1월 5일(월) ~ 8일(목) 장소: JDM훈련센터(243-6701)
대상: 기독교사, 유치원 교사, 예비교사

2) 청소년 수련회
일시: 1월 12일(월) ~ 15일(목) 장소: 광성 훈련원

3) 춘천지구 겨울집회
일시: 1월 19일(월) ~ 23일(금) 장소: 나눔교회
문의: 033)243-6701, 010-2704-3375

◆ GBT성경번역선교회

1) 비전기도회
일시: 1월 5일(월) 오후7시 장소: 서울 삼광교회

2) 29회 캠프위클리프
일시: 1월 6일 ~ 22일 장소: 대전 침신대
문의: GBT춘천지부 이지혜 간사 017-383-2416
[chuncheon@v2025.or.kr]

◆ 세계태권도선교회 춘천지회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9시~10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65

◆ 새부산개위십선교단 모임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반9:30분~11:00, 오후반3시~4:30분
대상: 아동부(6세~15세), 성인부(직장인, 주부, 청년, 사역자 등)
장소: 경원대태권도장(우석초교옆)
문의: 263-6022, 017-374-2440

◆ 제이락(춘천연합찬양단)

일시: 1월 5일, 19일(월 2회) 오후7시
장소: 이루어가는교회(cc볼링장 뒤) 문의: 010-9368-9856

◆ (재)기독교한국효신선교회

1) 춘천 대안교육 학생모집 (중고교생)
"적성을 찾아주고 꿈을 심어주는 미국의 메트스쿨 같은 대안학교를 지향"

2) 자원봉사자 및 전문멘토인 모집
청년봉사자: 스포츠, 동아리, 음악, 영어, 상담 등 청소년을 위해 함께 활동해주실 기독 청년.
문의: 254-3205 / H.P. 011-9737-1919

◆ 춘천기독선교무용단 단시모집

대상: 한국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교하기 원하는 분
위치: 후평동 인공폭포앞 1.5단갈비 4층
문의: 춘천기독선교무용단 010-3180-5330

◆ 목회자 특구회원 모집

일시: 월~토요일 매일 오전6시 회비: 무료
장소: 공지천 족구장 문의: 011-361-1995

◆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 춘천지역기관설치제1호
65세 이상 치매, 중풍, 장애 등 요양보호사 돌봄이 필요하신 분.
문의: 011-366-4972, 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타광희장로)

◆ 인터콥 춘천지부 (033-262-1040)

1) 월드미션
일시: 2009. 1. 19(월) 저녁7시
장소: 광염교회(애막골 진흥A 상가 건너편)
담당: 송봉춘 간사(010-9125-5894)

2)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주 월요일(3째주 제외) 저녁7시
장소: 효자감리교회(효자3동 주민센터앞)
담당: 장병자 간사(016-797-9234)

◆ 춘천기독교연합회 · 교역자연합회 신년교례회

일시: 2009. 1. 3(토) 오전 11시
장소: 순복음춘천 교회

◆ 춘천 장로교연합회 새해 목회비전 세미나 및 친교모임

일시: 2009년 2월 5일(목) 오전11시 장소: 동신 교회

◆ 중국유학(토기) 무료 설명회

대상: 중, 고, 대학, 기타 지역 모두
일시: 2009년 1월 12일(월) 오후1시
장소: 신북성결교회 (244-3620)
상담자: 이수영 선생 (중국 남경 영화중고등학교 선생)

색동저고리 한복연구소
한복사랑 22년
마음과 정성으로 한복의 멋을 이어나갑니다.
(신부님께는 예쁜 아침을 선물로 드립니다.)
투님을 모시듯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심경 김 기 순 권사(춘일교회)
☎ 243-9019, 011-1788-8406 [약사동 마을금고 옆]

하나투어 HANATOUR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주말에 여행 알아보기 힘드셨죠?
여행 매니저와 상담하세요.
연중, 주말 언제나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EL: 244-1212 (하나투어)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NTOURS 이마트내 1층에 입점해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성시화 사무국 예배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사무국 송년예배를 12월 11일(목) 오후2시 성시본부에서 드렸다. 이날 조영호목사(춘천그리스도의교회)는 디모데후서 2:20,2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불을 통과한 도자기 같이 삶의 고난과 상처, 모욕 등을 참고 인내하여 단단하고 강건해진 사람, 또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성시화운동을 하는 우리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통일나눔터 송년모임



통일나눔터(회장:김수복목사) 송년모임이 12월 5일(금) 오후5시 거성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조인형교수(강원대 명예교수)는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탈북자 및 북한 동포들의 인권 상황을 보고하면서 교회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새해에는 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한 기도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매주 모여 기도할 것을 다짐하였다.

■ 기아대책기구 춘천지역회 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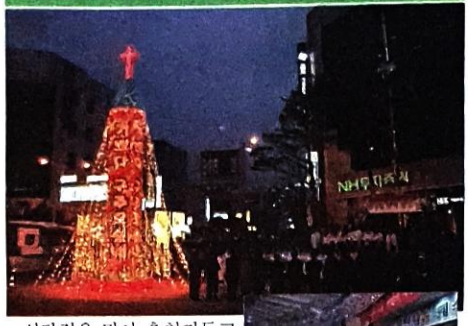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춘천지역회(회장:원종국) 정기총회가 12월 10일(수) 오전11시 춘천제일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원종국 회장은 춘천·양구 연탄은행과 효자종합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하여 '이웃에게 떡과 복음을' 이란 기아대책기구의 정신을 실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회장 원기배 목사(광장교회)가 선출되었다.

■ 홀리클럽 송년감사예배



춘천홀리클럽(회장:이학규)은 성탄축하 송년감사예배를 12월 15일(월) 오후7시 순복음춘천교회에서 드렸다. 이날 해병대·여성·청년홀리클럽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김영관사무국장이 사회를, 김주환 목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란 제목으로 예수님 탄생의 의미와 감사에 대한 5분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옛날이야기, 성탄절 되찾기, 회개기도와 소원기도, 합심기도 등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성탄절, 사랑과 희망의 빛으로 물들다!





성탄절을 맞아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장효근목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트리점등예배를 12월 7일 오후5시 중앙로에서 드렸다. 그리고 25일까지 문화공연, 사랑나무,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솜사탕만들기 등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또 춘천시번영회와 명동상가번영회, 지하상가운영위원, 와이신협, 새춘천신협과 함께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마련하여 25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 10kg 700부대, 라면 200박스를 전달함으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다.

춘천여성홀리클럽 창립



춘천여성홀리클럽 창립모임이 12월 11일(목) 오전11시 춘천YMCA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규약을 제정, "무궁화"기도모임으로 명칭을 정하고, 매월 둘째주 월요일에 모여서 국가와 민족, 춘천성시화와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의하였다. 초대회장에는 이주영 권사(예수소망교회)가, 부회장에 조식순 권사(성광교회)가 선출됐다.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여성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불꽃을 피우기를 기대해본다.

권오서 목사 출판기념 감사예배



권오서(60) 목사 목회 34년 춘천중앙감리교회 성역 20주년 기념하는 느헤미야서 강해집 「넘어야 할 산이 있다」과 번역서 「변화의 리더십」 출판감사예배가 12월 19일(금) 춘천중앙감리교회 덕수홀에서 열렸다. 이날 원종국 감독(춘천제일교회)이 '지금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설교하였고, 왕대일 감신대 교수(한국구약학회장)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에 대해 "느헤미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해설을 곁들여 이해를 높인 점과 저자의 깊은 묵상을 통해 '넘지 못할 산은 없다'와 '넘어야 할 산이 있다'란 두 가지의 명쾌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인상깊은 책"이라고 서평했다. 김홍기 감신대총장은 '변화의 리더십'을 통해 총장으로서 지니야 할 리더십을 배웠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 기독영화 〈네티비티스토리〉 상영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성탄절을 맞아 12월, 아기 예수의 탄생 스토리를 담은 영화 〈네티비티 스토리-위대한 탄생〉를 11일(목) 오후7시30분 늘사랑교회에서 상영하였다. 캐서린 하드윅 감독의 작품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고난과 인류구원자인 아기 예수 탄생을 성경에 입각하여 사실적으로 그렸다. 이 영화를 통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될것이다.

■ 동서남북지방 장로연합회장 이·취임예배



춘천 동서남북지방 장로연합회장 이·취임 예배 및 평신도지도자세미나가 12월 10일(수) 오후6시 광장감리교회에서 열렸다. 1부 세미나에서는 동부연회 원종국 감독이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 강연하였고, 2부 이·취임 예배에서는 2대 회장 홍세표장로(신성교회)가 이임하고 3대 회장에 서종신 장로(광장교회)가 취임하였다. 원기배 목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님을 본받아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였다.

■ 강원 기독 미술인 협회전



제12회 강원도 기독교 미술인 협회전(회장:김명숙)이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춘천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29명의 회원들은 신앙과 조형예술의 조화를 추구해온 서양화, 동양화, 조소, 서예, 실드로잉 등의 작품을 선보였다.

■ 추운 겨울, 따듯한 사랑의 손길들

▶ 12월 22일 일동후디스 춘천공장(춘천 거두리)은 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2008년도 어린이재단 산타원정대 행사에 참여하여 화대받는 아동들을 위해 12,288,000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다.

▶ 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최기원) 그룹홈에서는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피학대아동들 추운 겨울나기를 위한 모금마련 '사랑의 바자회'를 진행하였다.



■ 창조도시 시민 포럼 총회



춘천과 강원의 변화와 발전을 향한 창조도시 시민포럼 2008년 정기총회와 송년의 밤이 12월 26일 오후6시 강촌교회 마중물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총회에서는 박의범 상임대표(강원대 교수)가 재임되었으며, 공동대표에 한창석 산토리니대표와 한승호 강원전략산업기획단장이, 자문위원에 조명수 유엔기버넌스센터원장이 추대되었다.

취재·김미경

200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안내

본교는

복음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오순절 성령 운동의 기초가 되는 영성훈련과 학문적 이론을 통해 전인적인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명자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모집기간 : 1차 2009년 1월 5일(월) ~ 1월 21일(수)
2차 2009년 1월 23일(금) ~ 2월 19일(목)
교무처 : (033) 257-2740, 010-3342-4812
FAX : 241-2741

모집학과 및 응시자격

모집학과	과 정	응 시 자 격
신 학 과 (야간)	4년제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단, 신학과에 한함)
목회학과 (야간)	3년제	2. 신앙생활 및 가정생활에 무흠한 자
편 입	2년제	3. 침례(세례)를 받은 자
		4. 타 신학교 2년 이상 수료자 및 전문대 이상 학력소지자(단, 편입생에 한함)


이사장 김 주 환 목사


학장 이 준 일 목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강원신학교


춘천캠퍼스 이사장 박 상 호 목사

-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M.Div.)
- 총신대학교 RTS목회신학박사
- 전, 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 현, 월드비전 춘천시지부장
- 현,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학장 윤용진 목사(Ph.D.)

- 강원대학교 법학과(LL.B.)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 총신대학교 대학원(Th.M.Ph.D.)
- 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 현, 야웨신학교 학장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영적지도자 양성 및 훈련

신입생 모집 **야웨(יהוה)신학교**
YHWH Theological Seminary

2009년도 야웨(יהוה)신학교 신입생 모집

과 정	교육내용	캠퍼스	제출서류	수업일	비 고
상담연구원 (M.A.equ.)	기독상담사 양성교육	서울, 춘천	· 입학원서 (다운로드) · 최종졸업증명 · 자기소개서 · 주민등록등본 · 얼굴 사진	주 1 회(월요일)	실제사역중심
교회음악부 (B.A.equ.)	피아노 바이올린	서울		주 1 회 (조정가능)	실기 중심
성경학부 (B.Th.equ.)	성경연구 & 신학준비과정	서울, 춘천, 청주		주 2 회 (청주 주3회)	· 시간과 거리상 출석수업이 어려운 국내·해외지역 학생은 통영상담학로도 이수 가능함
신학연구원 (M.Div.equ.)	목사(선교사) 양성교육				
성경대학원 (Th.M.equ.)	본문주해설교 &성경교수법	서울, 춘천		서울 월2일 춘천 주1회	








신학과 영성
학업과 지성
생활과 정서
21세기 리더십
신학교의 모든것

한국교계의 지도자 양성
세계의 목회현장에 원하는
영적전사를 배출하는 신학교

야웨 신학교의 비전과
하나님의 뛰어난 도구로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야웨 신학교와 함께 하십시오.

야웨신학교 (YHWH Theological Seminary)
www.yhwhschool.org
yhwhschool@hanmail.net
문의 전화 : 02 - 3281 - 9256 / 070 - 8236 - 9256

- 서울캠퍼스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97-10번지 이앤씨 벤처드림타워 2차 1301호
  02) 3281-9256 / 011-340-5205
- 춘천캠퍼스 : 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46-5번지 춘천제일장로교회
  033) 253-7942 / 010-8901-0059
- 청주캠퍼스 : 충청북도 청주시 우암동 120-1번지 코스모스선교교회
  043) 223-0975 / 010-5588-9848
- 해외캠퍼스 : 제 1 캠퍼스(S국) / 제 2 캠퍼스(G국) - 성경학부, 신학연구원, 성경대학원
  070) 8236-9256 / 019-375-9256

야웨 신학교
YHWH Theological Seminary

춘천성시화운동본부